

손흥민, 4골 퍼부으며 리그득점 공동 1위

2015~2016 EPL 진출
한경기 개인 최다골
4골이상 28번째 기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토트넘)이 날카로운 골 결정력으로 4골을 퍼부으며 단숨에 득점부분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EPL 2라운드에서 선발로 나서 4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2015~2016시즌 EPL에 진출한 손흥민이 리그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4골은 한 경기 개인 최다골 기록이다.

에버턴과의 1라운드에서 침묵했던 손흥민은 리그 2번째 경기 만에 4골을 기록, 총 4골로 도미니 칼버트-르윈(에버턴)과 득점부분 공동 선두에 올랐다.

시즌 초반으로 팀당 경기 수가 다르고, 아직 첫 경기를 하지 않은 팀들이 있지만 인상적인 장면이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윌프레드 자하(크리스탈 팰리스)가 3골로 뒤를 이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는 2골로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 '토크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20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후반 2분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은 전반 추가시간 첫 번째 골에 이어 후반 2분과 19분, 28분에 각각 추가 골을 터트리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EPL 한 경기에서 4골 이상을 넣은 28번째 선수다.

에버턴 소속이던 에판 에코쿠가 1993년 9월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4골을 기록한 게 최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스타플레이어들이 즐비하다.

앤디 콜, 마이클 오언, 올레 군나르 솔샤르,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프랭크 램파드, 로비 킨, 저메인 데포, 웨인 루니, 세르히오 아게로, 루이스 수아레스, 에딘 체코, 로멜루 루카쿠, 해리 케인, 모하메드 살라 등이 손흥민에 앞서 4골 이상을 기록했다.

미첼리 안토니오(웨스트햄)가 지난 7월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4골을 넣은 게 가장 최근이다.

손흥민이 안토니오에 이어 EPL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뉴시스

'우리는 한핏줄'...프로야구 형제 선수들이 쓰는 진기록

KBO리그 형제 선수 27쌍
한 경기 동반 홈런 세 차례
형제 선발 맞대결은 '아직'

프로야구 출범 이후 39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수많은 형제 선수들이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같은 꿈을 품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형제 선수들이 성장해 프로 무대에서 동반 활약을 선보이거나 이색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야구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호뭇함을 선사한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정규시즌 1경기 이상 출전 선수를 기준으로 총 27쌍의 형제 선수가 등장했다.

▲같은 팀 선발 출전은 4쌍뿐... 한 경기 '형제 동반 홈런'은 세 차례

야수인 형제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에 선발 출전한 것은 1985년 4월9일 삼미 슈퍼스타즈의 양승관(51)과 양후승(49)이 처음이다. 당시 형 양승관이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동생 양후승이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나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OB의 구천서-구재서, 빙그레 이글스의 지화동(53)-지화선(50) 형제가 동일 팀 형제 야수 선발 출전 명맥을 이었다.

1993년 9월22일 지화동-지화선 형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동일 팀 형제 야수 선발 출전 기록을 다시 이은 것은 최정-최항 형제다. 최정과 최항은 2017년 6월25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처음으로 나란히 선발 출전해 24년 만에 동일 팀 형제 선발 출전 사례를 썼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반 선발 출전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형제가 한 경기에서 나란히 홈런 포를 가동한 것은 세 차례 뿐이다.

1986년 7월31일 청보 핀토스 소속의 양승관-양후승 형제가 인천 롯데전에서 역대 최초로 한 경기 형제 동반 홈런 기록을 작성했다.

두 번째로 한 경기 동반 홈런 기록을 써낸 형제는 나성용(32)-나성범(31·NC 다이노스) 형제다. 형제가 맞대결 경기에서 동반 홈런을 기록한 유일한 사례다.

5년이 흐른 뒤인 올해 최정-최항 형제가 역대 세 번째 기록을 썼다. 지난 13일 인천 롯데전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정은 4회말 투런 홈런을 쳤고, 6번 타자 겸 2루수로 나선 최항은 5회말 솔로 포를 날렸다.

▲형제 선발 맞대결은 '아직'... 같은 날 선발 등판도 두 번 뿐

프로야구 역사상 형제 선수가 같은 날 등판한 것은 총 24차례 있었다. 2019년 이후로는 김병수와 김윤수가 총 14번 같은 날 등판했다. 이외에 윤동배(64)-윤형배(51)가 5번, 최영필(46)-최영완(44)이 2번, 박세웅-박세진이 2번, 정대현(29·키움)-정동현(23)이 1번 같은 날 1군 경기 마운드에 올랐다.

투수 형제 가운데 동일 팀에서 같은 경기에 등판한 것은 윤동배-윤형배 형제가 유일했다.

아직 형제가 같은 경기에서 양 팀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 선발 맞대결을 펼친 적은 없다.

한 날 한 시에 형제가 각기 다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것은 두 번 있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형제 동반 선발승은 불발됐다.

최초의 사례는 정대현, 정동현 형제가 만들었다. 2016년 6월10일 당시 KT 소속이던 형 정대현은 고척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전에, KIA에서 뛰던 동생 정동현은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에 선발 등판했다. 정동현은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된 반면 정대현은 6이닝 3실점



SK 와이번스의 최정(사진 오른쪽), 최항 형제.



롯데 자이언츠의 박세웅(사진 오른쪽)과 KT 위즈의 박세진.



KT 위즈 유원상, KIA 타이거즈의 유민상

(2자책점)하고도 승패없이 물러났다.

2016년 7월27일 형 박세웅이 롯데 소속으로 잠실 LG전에, KT 소속이던 동생 박세진이 광주 KIA전에 선발 등판하면서 두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 박세웅은 6%이닝 5실점(3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박세진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우산장수-짚신장수 둔 부모

심정...형제들의 투타 맞대결 부모가 우산장수, 짚신장수 자식을 둔 심정으로 바라봤을 형제의 투타 맞대결은 KBO리그에서 두 번 있었다.

최초는 1995년 태평양 돌핀스의 투수 정명원과 쌍방울 레이더스의 타자 정학원의 대결이었다. 1995년 9월5일 전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태평양의 마무리 투수였던 형 정명원은 9회말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동생 정학원을 유격수 앞 땅볼로 처리했다.

두 번째 형제 투타 맞대결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인 올해 나왔다. 유승안 전 경찰야구단 감독의 두 아들 유원상, 유민상이 두 번째 사례를 써냈다.

올해 5월2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KT 볼펜 투수로 활약 중인 형 유원상이 KT가 0-2로 뒤진 7회초 무사 1, 3루의 위기에 마운드에 올랐다. 이후 1사 1, 2루 상황에 KIA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동생 유민상이 타석에 들어서면서 형제 맞대결이 이뤄졌다.

▲함께 가을야구 한 형제는 조동화-조동찬, 최정-최항 뿐

같은 해 함께 포스트시즌을 경험한 형제는 두 쌍 뿐이다.

현역 시절 SK에서만 뛰던 형 조동화와 삼성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동생 조동찬은 같은 팀에서 뛰 적은 없지만, 두 번이나 한국시리즈에서 상대 팀으로 만났다. 2010년 한국시리즈에서는 형이 우승반지를 썼고, 2012년 한국시리즈에서는 동생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형제가 한 팀에서 가을야구 무대를 경험한 것은 최정, 최항 형제 뿐이다. 동생 최항이 1군 선수로 자리를 잡은 2018년 SK는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해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최정과 최항은 나란히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SK가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맛보면서 이들 형제는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황희찬, 교체 출전으로 분데스리가 데뷔

마인츠와 홈 개막전 후반 24분 그라운드 밟아

린 마인츠와 2020-2021 분데스리가 홈 개막전에서 교체 출전했다.

지난 12일 뉘른베르크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서 라히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첫선을 보였던 황희찬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1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팀이 3-1로 앞선 후반 24분 황희찬은 다니 올모와 교체돼 그라운드

를 밟았다. 황희찬의 분데스리가 데뷔가 이뤄진 순간이다. 20여 분을 뛰 황희찬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라이프치히는 마인츠를 3-1로 눌렀다.

마인츠의 한국인 공격수 지동원은 무릎 부상으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뉴시스



'황소' 황희찬(24·라이프치히)이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황희찬은 20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

'9월 14승 4패' 진격의 KT, 상승세 어디까지

KT, 최근 5연승 '3위' 꺾자
선두 NC와 불과 3.5경기차
주춤 LG·두산, 순위 수성 사활

9월 들어 매서운 상승세를 자랑하며 3위까지 올라선 KT 위즈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2위는 가시권에 들어왔고, 선두 등극까지 노리고 있다.

KT는 지난주 6경기에서 5승 1패로 상승세를 자랑했다. 16일 수원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20일 인천 SK 와이번스전까지는 5연승을 질주했다.

시즌 초반 5위권 밖에 머물던 KT는 7월 한 달 동안 15승 1무 6패를 거두며 중위권으로 올라섰고, 9월 들어 한번 더 승수황기에 박차를 가해 3위까지 점프했다.

KT는 9월 이후 치른 18경기에서 무려 14승을 수확했다.

투타에서 모두 안정된 모습을 자랑하면서 매서운 상승세를 뽐냈다. 9월 이후 KT의 팀 평균자책점은 3.92로 1위다. 9월 이후 팀 타율은 0.289로 3위고,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9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KBO리그 적응을 마친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는 KT가 기대했던 에이스의 면모를 아낌없이 자랑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6경기에서 2승 4패



평균자책점 7.41로 다소 흔들리기도 했던 데스파이네는 7월부터는 안정적 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데스파이네는 9월에 나선 4경기에서는 2승 1패 평균자책점 2.96으로 활약하며 KT의 상승세에 앞장섰다.

윌리엄 쿠아바스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데스파이네와 원투펀치를 이뤘다. 여기에 배제성, 소형준, 김민수로 이어지는 토종 선발진이 안정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이강철 감독의 배려 속에 7월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소형준은 8월에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57로 활약했고, 9월에 나선 3경기에서도 2승 무패 평균자책점 3.31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이어갔다.

8월에 다소 흔들렸던 배제성은 9월 들어서는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

책점 3.38을 기록하며 살아났다.

김재윤이 새롭게 마무리로 자리잡으면서 안정을 찾은 KT 볼펜은 안정감을 더해가고 있다. 김재윤을 필두로 주권, 하준호, 이보근 등 확실한 필승조가 구축됐다.

홈런 선두 벨 로하스 주니어가 버틴 KT 타선도 상대 마운드에 두려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로하스, 강백호, 유한준이 버틴 KT 중심타선은 남부럽지 않다. 최근 타격에서 성장세를 자랑한 배제성과 강한 2번의 표본인 황재균이 테이블세터로 나서며 출루와 해결사 역할을 동시에 해낸다.

8월 한 달 동안 타율 0.206에 그치며 잠시 부진을 겪었던 로하스는 9월 들어서는 타율 0.375 5홈런 16타점을 올리며 불방망이를 자랑했다.

뉴시스